

행복한 통신세상을 꿈꾸는 Man Power

더위에 지친 하루 시원한 호프
한잔으로 깨끗하게 날리자!
“위하여!” / 권호인 팀장

깊은 바다 해저의 신비함을 찾을
수 있는 뉴 블루 오션 전략으로
여름을 더위와 함께!(벌써 더위
먹었나?) / 전병기 팀장

무더위 끝에 시원한 공기와 높은
하늘이 준비된 가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위업도 호전될 것이라
는 믿음을 다져 본다. “화이팅”
/ 정광철 본부장

부채 바람을 타고 오는 모깃불의
꼿꼿한 내음, 일단 떠나 볼까나.
/ 정원모 대리

여름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란
이별차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은 자가 아닐까.
/ 나석호 대리



인

터넷, IT강국 코리아는 결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보노라면 그 속도감에 주눅이 들기도 하지만 이를 개발하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전선의 첨병들에게 그 하루는 짧기만 하다.

전자도서관 및 무선통신 솔루션 전문 기업 퓨처인포넷의 통신솔루션 영업팀은 유무선통신 솔루션 영업을 담당하는 다섯 남자들의 베이스 캠프이다.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만큼 이들의 열의는 남다르다. 최근 KT에 인증 과금 시스템을 수주하는 개거울 올린 이후 더더욱 고무된 분위기. 세계 최초로 국내 상용화를 앞둔 휴대인터넷(WIBRO) 환경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인증과 권한 검증, 과금 서비스를 구축하는 솔루션은 대단히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퓨처인포넷의 DIAMETER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AAA 솔루션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지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데 자부심이 큩니다. 그 희소성은 실전에서 영업을 하는 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고 연구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정광철 통신사업본부장을 겨냥한 선물용(?) 멘트로 들릴 수도 있으나 나석호 대리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이어 정광철 본부장은 “우리가 지난 기술력은 블루 오션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휴대

인터넷(WIBRO) 시장은 아직 국내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은 초기 단계여서 더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요.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는 일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고 덧붙인다.

영업의 특성상 팀원들은 저마다 각자의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분주하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시간은 짧다. 하지만 솔루션 영업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특히 개발팀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유도하고, 그 간극을 좁혀나간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급변하는 IT 솔루션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저변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 팀원들은 수평적 인간관계가 팀워크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위에 따른 전형적인 업무 분장을 탈피하여 팀원이 지닌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

퇴근 후엔 업무를 떠나 남자들만의 파티를 일상화하고 있는 그들이다. 여타 회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들은 한바탕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화젯거리로 피로를 녹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 웃음이 내일 만나는 고객에게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일 터.

여름 휴가 일정이 잡힌 그들에게 여름의 느낌을 물어보았다. 꽃미남 정원모 대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전병기 팀장의 너스레가 분위기를 더욱 돋우고 그들은 오늘도 의기투합한다. “뛰풀이 합시다!”